

청년과 노인의 자기존중기억의 심리적 거리로 살펴본 자전적 기억이 자기 개념에 미치는 영향*

김 영 경¹⁾

김 혜 리²⁾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청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자기존중기억의 주제를 살펴보고 기억의 질, 연령, 자아존중감과 기억에 대한 심리적 거리 간 관계를 통해 자전적 기억이 자기 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자기존중기억(self-esteem memory)이란 자기에 대해 현재까지 좋거나 나쁘게 생각한 특별한 사건에 대한 기억을 말한다. 연구 참가자는 청년 37명, 노인 34명, 총 71명이었으며 긍정 및 부정적 자기존중기억을 각 네 가지씩 회상하도록 하여 내용 및 양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든 분석은 PASW Statistics 21을 사용하여 자기존중기억의 주제 간 차이는 카이제곱검증을 하였고, 기억에 대한 심리적 거리와 기억의 질, 개인의 특성 간 관계를 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으며, 심리적 거리에 대한 관련 요인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청년의 긍정 및 부정적 자기존중기억의 주제는 성취나 성공보다는 대인관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노인은 부정적 자기존중기억만 대인관계에 관한 내용이 더 많았다. 이는 전 연령층에 걸친 우리 문화의 집단주의적 특성 및 노화에 따른 기능 저하의 보상작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년은 긍정적 자기존중기억에 대한 심리적 거리의 예측요인이 사건의 시연 및 새로움, 사건 발생 당시의 연령이었으며 부정적 자기존중기억은 기억의 정서와 생생함, 자존감으로 나타난 반면, 노인의 경우에는 긍정적 자기존중기억의 예측요인으로 사건의 중요성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 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노화에 따라 사건의 중요성으로 단순화됨을 보여준다. 논의에서 본 연구의 의의, 제한점, 추후연구에 대해 기술하였다.

주요어 : 자전적 기억, 자기 개념, 기억의 심리적 거리, 자기존중기억의 주제, 기억의 질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1025315).

1)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강사 및 연구원

2) 교신저자 :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E-mail: hrghim@chungbuk.ac.kr)

I. 서 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기도 하고 의도 없이 문득 과거의 경험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경험한 것을 회상하여 곰곰이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얻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연구자가 자기 삶에 대한 개인적 기억인 자전적 기억의 기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Pillemer(1992)가 자전적 기억의 기능을 지시(directive) 기능, 자기(self) 기능, 사회(social) 기능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가설화시킨 것이 널리 받아들여진다(Bluck, Alea, Haberman, & Rubin, 2005). 첫째, 지시적 기능은 과거를 통해 현재 및 미래의 사고와 행동의 방향을 잡아주는 안내 역할을 말한다. 자전적 기억은 문제 해결이나 의견 및 태도 발달에 도움을 주고(Cohen, 1998) 과거를 이해하면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 가능하게 하며(Baddeley, 1987) 과거 이해 및 미래 예측 방식을 유연하게 해 준다(Lockhart, 1989). 두 번째 기능은 자기 기능으로 자전적 기억이 자기의 연속성을 가능하게 해 준다는 것이다. 우리는 시간이 경과해도 일관된 자기상을 유지하는데(Barclay, 1996), 이러한 일관된 자기상은 어린 아동기부터 발달하며(Fivush, 1998) 사춘기에 자신의 경험담을 묘사하면서 자기 기능의 역할이 확장된다(Habermas & Bluck, 2000).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미래에 투영시켜 본다. 이런 면에서 Conway(1996)는 자전적 기억이 자기의 연속성을 지지하고 증진시키며 자기를 발달시킬 수 있으므로 자전적 기억이 자기 개념의 정립 및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자전적 기억은 사회적 유대를 발달시키고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기본적으로 자전적 기억은 대화의 소재가 되어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며, 타인에게 자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기억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Cohen, 1998). 또한 사회적 관계에서 개인적인 기억을 공유할 때 대화는 보다 믿을 만하고 설득적일 수 있다. 우리가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면 타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듣는 사람의 관심을 높여 공감적 반응을 더 이끌어내며, 특히 듣는 사람이 유사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Pillemer, 1992).

이와 같이 자전적 기억을 회상, 시연, 공유하는 것은 현재의 나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며 미래의 나를 예측 가능하게 하고 사회관계의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이제 자전적 기억의 기능 중에서 자기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보자. 자기 개념(self-concept) 혹은 자기상(self-image)은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자기의 일면이며 현재의 자기를 정의하는 것이다. 자기 개념은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경험을 토대로 형성되는데, 과거의 어떤 사건과 어떤 내가 회상되는지는 현재의 자기 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개인이 현재의 자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신념이나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는 이전의 자기를 어떻게 기억하고 평가하는가에 영향을 미친다(Wilson & Ross, 2003). 따라서 경험한 사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사건이 어떻게 기억되는지, 회상하는 개인의 특성이 어떠한지 등과 자기 개념 간 관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사건 중 어떤 내용의 사건을 심리적으로 가깝게 여기며 자기개념과 연합시킬까? 일부 연구자들은 자전적 기억 중 자기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를 좋게 혹은 나쁘게 느꼈거나 생각한 특별한 경우를 가리켜 자기존중기억(self-esteem memorie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Pillemer, Ivcevic, Gooze, & Collins, 2007). 자기존중이란 전반적인 자기 가치감으로 긍정적 차원과 부정적 차원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Elliot & Mapes, 2005), 자기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정의된다(Rosenberg, 1965). Pillemer 등(2007)은 연구 참가자들에게 긍정 및 부정적 자기존중기억을 회상하도록 함으로써 자기 평가가 분명하게 반영되어 있는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들은 자기존중기억의 내용을 범주화하려는 노력도 계속해왔는데, 그 중에 탁월한 접근법은 다양한 생활 상황에서 우리의 행동이나 동기는 주로 성취 목표나 사회적 목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성취 및 뛰어난 능력에 관한 내용을 하나의 범주로 보고, 개인 간 혹은 단체에서의 관계에 관한 내용을 또 다른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었다(McAdam, 2001; Woike, Mcleod, & Goggin, 2003). 이러한 분류법에 따라 어떤 주제의 자전적 기억에 자기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하는지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자기 평가는 대체로 성취와 관련된 기억이었던 반면, 부정적인 자기 평가는 관계에 관련된 기억에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양상은 여성 및 혼성 대학생 그리고 중년 여성에서 동일하였다. 성취나 완성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동기이고 성취는 심리적 안녕감에 큰 영향을 끼치며 전체적인 자기에 대해 호감을 갖게 하는 수단이 되므로(Deci & Ryan, 2000; Elliot, McGregor, & Thrash, 2002) 긍정적인 자기존중기억으로 성취주제가 잘 어울리는 한편, 인간에게는 소속욕구가 있고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원하는데 타인과 좋은 관계에서 받는 긍정적인 영향보다 사회관계에서의 문제가 생활 만족도와 자기평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크므로(Pillemer et al., 2007) 부정적 자기존중기억의 주제로는 관계가 어울린다. 그 이후에 Ivcevic 등(2008)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크로아티아의 남녀 대학생에게 10-15세에 발생한 자기존중기억을 회상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각 문화에서 긍정적인 자기존중기억은 성취에 관한 주제와, 부정적인 자기존중기억은 사회적 관계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자기존중기억과 기억의 주제 간 관계는 범문화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기억의 주제와 함께 기억이 나에게 미친 영향력을 보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것이 기억의 질이다. 기억의 질은 경험한 사건이 개인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건을 얼마나 자주 생각하거나 말하는지, 사건에 대한 기억이 얼마나 선명하게 떠오르며 생생한지, 경험한 사건이 새로운 경험이었는지, 그 사건에 대한 정서는 어떠한지 등을 말하며 사건 전후의 정서 및 사고의 변화가 포함되기도 한다(Levine, Svoboda, Hay, Winocur, & Moscovitch, 2002). 자전적 기억의 질적 요소와 자기 개념 간 관계를 본 연구가 많지는 않으나 시연의 빈도가 사건에 대한 심리적 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으며(Ross & Wilson, 2002), 최근에 수행된 한 연구(Demiray & Janssen, 2015)에서는 시연뿐만 아니라 생생함, 정서, 중요성도 기억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경험한 사건에 대한 기억이 긍정적이고 생생하며 그 일을 자주 이야기한다면 그 일을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껴 그 사건 속의 나의 모습을 나의 개념으로 받아들일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사건을 기억하는 회상자의 연령도 하나의 변수로 자기 개념에 영향을 미칠까? 연령에 따라 사건에 대한 해석이나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사건 발생 시점과 현재 간 시간 차이가 달라짐으로써 기억에 대한 심리적 거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기 개념은 자기 평가의 결과이기도 한데, 사람들은 흔히 과거의 나보다 현재의 나에 대해 더 좋게 평가한다.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서 경험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흔히 과거의 자기는 부족하고 잘못된 사고나 행동을 했더라도 최근의 자기는 과거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부정적인 기억이나 과거의 실패보다 긍정적인 기억이나 과거의 성공을 현재의 자기와 심리적으로 더 가깝게 지각함으로써 호의적인 자기 개념을 유지하는 이런 현상에 대해 Ross와 Wilson(2000, 2002)은 시간적 자기 평가 이론(theory of temporal self-appraisal)을 제시하였다. 이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현재의 자기를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자전적 기억을 인출하는 동안 기억을 보는 각도를 개정하게 되는데, 과거 경험과

현재 간 거리에 대한 이러한 주관적인 인상은 자전적 기억의 자기 향상 기능을 기반으로 한다.

연령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도 자기 개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 왔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신념의 집합을 자기 개념이라 한다면 자아존중은 자신이나 자신의 가치 평가에 대한 태도를 일컫는다(Baumeister, Campbell, Krueger, & Vohs, 2003). 자아존중은 정신건강 및 신체 건강(Orth, Robins, & Roberts, 2008; Stinson et al., 2008)과 관련이 있으며 대인관계(Orth, Robins, & Widaman, 2012)뿐만 아니라 직업(Judge & Bono, 2001), 문제해결능력(Mckay & Fanning, 2000)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아존중감이 자기 개념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에 비해 긍정적인 기억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더 가깝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Demiray & Janssen, 2015; Ross & Wilson, 2000).

지금까지 기술한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자전적 기억이 자기 개념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이며 기억과 자기개념 간 역학을 고려할 때 연령이나 자아존중감 같은 개인적 특성과 기억의 질이 자기 경험에 대한 기억의 심리적 거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자전적 기억은 노화에 의한 기억 구성요소의 변화(김영경, 진영선, 이장호, 2009)나 노화에 따르는 발화 변화(김영경, 진영선, 2013), 우울한 사람의 회고 특성(김영경, 2014; 이혜림, 최윤경, 2012) 또는 회고를 통한 자서전 쓰기(이광경, 주영아, 2016;

진영선, 김영경, 2011) 등의 연구에서만 발견된다. 자전적 기억에는 자기 경험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인 평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기억의 정확성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기억의 객관적 정확도를 넘어서서 개개인에게 생태학적으로 타당하고 중요하므로 자전적 기억의 기능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자기 개념은 개인이 속한 사회, 문화라는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 내에서 개인이 어떤 사건으로 자신을 긍/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 그 경험을 어떻게 기억하며 자기개념으로 쌓아 가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자아존중감이나 연령이라는 개인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개인이 보다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자기 개념을 정립하며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평균수명 연장으로 우리는 인생 스크립트를 새롭게 써야 할 상황에 직면하였는데, 길어진 노년기에 대한 새로운 스크립트에 따르는 역할이나 관계 등에서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유연한 자기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전적 기억과 자기 개념 간 관계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노화에 따라 자아개념의 영향 요인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자기존중기억에 관한 국외 선행연구가 연령 구분 없이 성인 전체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므로 청년과 노인 집단별로 살펴보는 것이 더욱 필요하고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고정된 표상으로 저장되지 않고 인출 시점에서 개인의 목표에 따라 회상되는 자전적 기억에 관한 것으로, 개인이 경험한

사건 중에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는 사건에서의 ‘나’는 나에 관한 중요한 지식이 되어 자기 개념에 반영, 통합될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긍정 및 부정적 자기존중기억을 인출하도록 한 후, 기억의 내용이 어떤 주제에 관한 것인지 살펴보고 기억의 어떤 질적 요소가 기억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자아존중감과 연령이라는 개인적 특성이 심리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자전적 기억과 자기 개념 간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 대상자는 표 1과 같이 청년(19세~26세) 37명, 노인(60세~86세) 34명으로 총 71명이었다. 청년은 C대학교 학생으로 연구 참가자 모집 시스템을 통해 참가하였으며 노인은

표 1. 참가자 특성 (N = 71)

	청년 (n=37)		노인 (n=34)	
	M	SD	M	SD
남/여	12/25		11/23	
연령	21.97	1.89	74.06	6.95
교육연수	14.14	1.11	12.53	4.34
인지기능	28.57	1.21	24.09	2.63
우울	8.70	5.71	9.44	6.28
자아존중감	35.49	6.58	35.44	5.18

C도 소재 노인복지관 이용자 중에 공고를 통해 참가하게 되었다. 인지기능 검사 점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그리고 우울검사에서 심한 우울상태에 속하거나 자아존중감 검사 점수가 20점 미만으로 매우 낮은 청년 2명과 노인 2명은 제외하였다.

2. 측정도구

자기존중기억 회상

참가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느꼈거나 생각한 일을 4가지씩 총 8가지를 회상하도록 하였다. 자전적 기억의 일반적인 연구방식에 따라 회상하는 사건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있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하루 이상 지속되지 않아야 하며, 기억에 대한 구술시간은 너무 짧거나 너무 길지 않게 5~30분으로 제한하였다. 연구자는 참가자가 자기존중기억을 구술하는 동안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으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네’, ‘아’와 같은 경청의 반응만 하였다.

자기존중기억의 질 평가

회상한 기억에 대해 차례대로 각각 ① 사건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② 사건의 정서가 어느 정도인지 ③ 기억이 얼마나 생생한지 ④ 사건을 얼마나 자주 시연하는지 ⑤ 사건이 얼마나 새로운 경험이었는지를 평가하였는데, 7점 척도인 정서를 제외하고 모두 5점 척도였다.

자기존중기억과의 심리적 거리 평가

회상한 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참가자의 나

이가 몇 세였는지 말한 후에 Demiray와 Janssen (2015)의 연구에서와 같이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는지, 현재의 나는 그 사건 속의 나와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는지, 그 사건이 얼마나 친숙하게 느껴지는지를 각각 7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 Esteem Scale, RSES)

Rosenberg(1965)가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를 전병제(1974)가 번역한 것으로, 2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뉘어져 있다.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인 자아존중감 5문항,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몬트리올 인지기능 검사(Montreal Cognitive Assessment-K, MoCA-K)

MoCA-K는 Nasreddine 등(2005)이 경도인지장애를 선별하고자 개발한 검사 MoCA를 수정, 보완하고 타당도 평가를 거쳐 한국형으로 작성된 것이다. 전반적인 인지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시간공간실행력, 어휘력, 주의력, 문장력, 추상력, 지연 회상력, 지남력 등으로 구성되었다. 총 30점 만점으로 학력에 따른 인지기능의 차이를 보정하며 절단점을 22점 이하로 제시하고 있다.

노인 우울척도(Korean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KGDS)

Yesavage 등(1983)이 개발한 척도를 정인파,

곽동일, 조숙행과 이현수(1998)가 표준화한 한국판 노인우울척도다.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뜻한다. 신체적 증상과 관련된 문항은 배제하고 우울의 인지 및 행동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노인의 우울 측정에 적합하다.

백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Beck(1967)이 우울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 보고형 도구를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하였다.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0~3점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 총점 범위는 0~63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다.

3. 연구절차

참가자는 연령, 학력 등 인구통계학적 질문

에 답한 다음, MoCA를 실시하고 자기에 대해 긍/부정적으로 느꼈던 사건을 4가지씩 회상하였는데, 참가자의 절반은 긍정적 자기존중기억을, 나머지 절반은 부정적 자기존중기억을 먼저 회상하여 구술하였다. 총 8가지 사건의 구술을 마치면 각 사건 발생 시 참가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기억의 질적 평가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RSES와 KGDS/BDI를 실시하였고 모든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체로 1시간~2시간 정도였다.

4. 분석방법

자기존중기억의 내용 분석은 Woike 등(2003)의 분류법을 따랐다(표 2 참조). 범주는 크게 ‘성취’ 그리고 ‘관계’로 나뉜다. ‘성취’는 개인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일을 완수하거나 성

표 2. 자기존중기억의 내용 분류

주제		세부 내용
성취 또는 기능 개인의 기준에서 ‘우수하다’ 또는 ‘우수하지 않다’로 생각된 사건	긍정	성공, 인정, 성취, 완성 등
	부정	목표 달성의 좌절이나 실패
사회관계 타인과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건	긍정	즐거운 사회 경험, 사랑, 친밀함, 우정, 이해, 사회적 수용 등
	부정	신용이나 충성의 배신, 부정직, 이해 부족, 사회적 거부 등
성취 및 관계 성취와 관계, 두 가지 모두에 관련되는 사건	긍정	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룬 개인적 성취
	부정	예, 친구의 배신으로 목표 달성에 실패
기타 성취와 관계, 두 가지 모두에 관련이 없는 사건	긍정	예, 음악회 입장권 획득, 부동산 구매
	부정	예, 부주의로 인한 낙상, 질병에 걸림

공하는 것이 긍정적인 예이며 부정적인 예는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거나 실패하는 것이다. ‘관계’는 타인과의 관계에 관련되는 경험을 뜻한다. 긍정적인 예로는 즐거운 사회 경험, 사랑, 친밀함, 우정, 이해, 사회적 수용 등이 있고 신용이나 충성의 배신, 부정직, 이해 부족, 사회적 거부 등이 부정적인 예다. 두 가지 주제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아서 양쪽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 ‘성취 및 관계’로 분류되며 두 가지 범주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으면 ‘기타’로 분류된다. 범주 분류는 1차적으로 연구자가 참가자의 구술을 들으면서 핵심 내용을 기록한 후에 하고, 그 이후에 기록을 다시 보거나 녹음을 들으며 확인 및 재분류하였다. 두 연구자가 전체 구술을 평정한 결과, 평정자 간 분류 일치도는 ‘성취/기능’ 주제에서 91%, ‘사회관계’ 주제에서는 94.38%였으며, 분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논의를 통해 해결하였다. 기억 주제 간 차이는 카이검증을 하였으며, 기억에 대한 심리적 거리와 기억의 질, 개인의 특성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후, 회귀분석으로 기억에 대한 심리적 거리의 예측요인을 알아보았다. 모든 분석은 PASW Statistics 21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자기존중기억의 주제를 분류한 후, 각 연령 집단에서 긍정 및 부정적 기억별 주제의 차이를 보기 위해 카이제곱검증을 하였으며, 기억에 대한 심리적 거리의 예측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1. 자기존중기억의 내용

청년 및 노인의 자기존중기억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회상한 사건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연령별 빈도 분석 전에 주제에 성차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청년과 노인의 긍정 및 부정적 기억에서 성취 주제와 관계 주제 모두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빈도를 백분율로 나타내면 청년은 긍정적인 기억 중 58.11%가 ‘관계’ 관련 주제였고 34.46%가 ‘성취’ 관련 주제였으며 두 가지 주제가 모두 포함된 경우가 7.43%, 기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자기존중기억의 경우에는 ‘관계’ 관련 주제가 63.51%, ‘성취’ 관련 주제는 31.08%, 두 가지 주제를 포함하는 기억은 0.68%, 기타는 4.73%이었다. 그리고 노인의 경우에는 긍정적 기억에서 관계가 41.18%, 성취가 52.21%, 관계와 성취 모두 포함된 기억은 2.21%, 기타는 4.41%였으며 부정적 기억에서는 관계 61.76%, 성취 31.62%, 기타 6.62%, 관계와 성취가 모두 관련된 기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과 노인의 긍정 및 부정적 자기존중기억의 내용에 대한 주제별 빈도 백분율은 그림 1과 2에 각각 제시하였다.

긍정 및 부정적 자기존중기억에서 성취 및 관계 주제의 빈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령집단별로 카이제곱검증을 한 결과, 청년집단에서 긍정적 기억은 $\chi^2 = 12.92(p = .012)$, 부정적 기억에서 $\chi^2 = 20.55(p = .000)$, 노인집단은 긍정적 기억에서 $\chi^2 = 5.73(p = .334)$, 부정적 기억에서는 $\chi^2 = 10.08(p = .039)$ 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은 긍정적 기억과 부정적 기억 모두 대인관계와 관련된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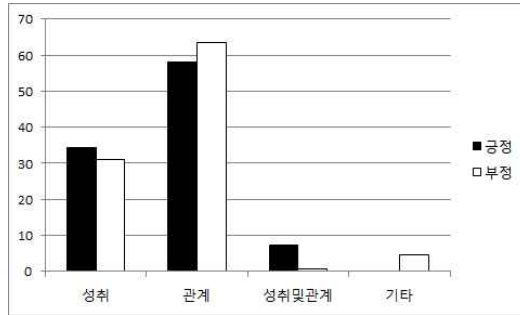


그림 1. 청년의 긍/부정적 자존기억의 주제별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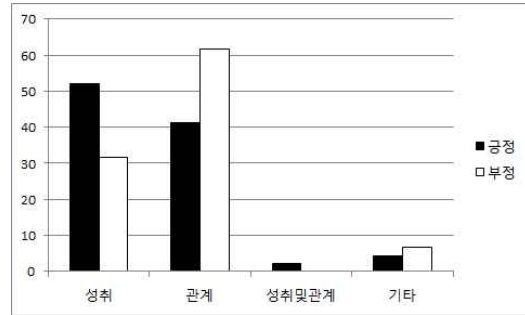


그림 2. 노인의 긍/부정적 자존기억의 주제별 백분율

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노인은 긍정적 기억에서는 주제간 차이가 없었으며 부정적 기억은 대인관계 주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 자기존중기억의 심리적 거리에 대한 예측요인

자기존중기억의 심리적 거리에 대한 예측요인을 알아보기 전에 예비분석으로 주요 변량

인 심리적 거리에 성차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심리적 거리에 성차는 없었으며($F = .56, ns$), 연령집단별 분석에서도 청년($F = 3.20, ns$)과 노인($F = .28, ns$) 모두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청년 및 노인 집단별로 기억에 대한 심리적 거리 및 관련 요인의 기술통계치를 산출하고(표 3에 제시), 요인들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심리적 거리에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표 3. 기억의 질 변인과 기억 연령, 심리적 거리의 평균 및 표준오차

	긍정사건				<i>F</i>	부정사건				<i>F</i>
	청년		노인			청년		노인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정서	24.00	2.89	26.21	2.07	13.47***	8.97	2.49	7.38	2.51	7.18**
중요	15.78	1.89	18.32	2.51	23.49***	14.92	2.28	17.62	2.12	26.60***
생생	15.84	2.43	21.91	12.14	8.88**	15.46	2.60	18.41	1.64	32.15***
시연	11.95	2.65	15.88	3.53	28.56***	12.11	3.53	14.68	2.95	10.97**
새로움	15.51	2.74	18.38	1.91	25.72***	13.76	2.69	16.94	3.18	20.85***
기억 연령	18.60	2.76	56.98	13.07	304.62***	18.18	3.06	59.24	13.11	343.16***
심리적 거리	18.49	3.20	22.40	4.53	17.90***	15.69	3.56	12.14	4.31	14.48***

** $p < .01$. *** $p < .001$.

표 4. 청년의 긍정 및 부정적 기억의 질, 심리적 거리, 참가자 연령 및 기억 연령 간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P-기억연령	1															
2P-정서	.06	1														
3P-중요	-.00	.46**	1													
4P-생생	.35*	.26	.36*	1												
5P-시연	.14	.39*	.49**	.34*	1											
6P-새로움	.17	.25	.46**	.19	.39*	1										
7P-심리거리	.29	.22	.29	.54**	.57*	-.03	1									
8연령	.54**	.06	.03	.01	-.14	.11	-.22	1								
9자존감	-.00	-.18	-.13	.12	-.19	-.13	.13	-.15	1							
10N-기억연령	.51**	.26	1.00	.00	-.12	.02	-.05	.41*	-.39*	1						
11N-정서	.10	-.26	-.31	.02	-.36*	-.32	-.18	-.17	.31	.06	1					
12N-중요	.11	.22	.48**	.25	.42**	.34*	.14	.06	-.13	.23	-.19	1				
13N-생생	.19	.24	.08	.28	-.02	.21	-.01	.16	-.38*	.51**	.04	.42*	1			
14N-시연	.43**	.11	.25	.20	.32	.38*	-.04	.30	-.21	.12	-.16	.61**	.36*	1		
15N-새로움	-.05	-.13	-.01	.01	-.03	.24	.10	-.08	.37*	-.28	-.10	-.11	-.09	.38*	1	
16N-심리거리	.20	.06	.01	.09	.10	.05	-.12	.13	-.59**	.47**	.12	.51**	.65**	.50**	-.41*	1

주. P는 긍정 사건, N은 부정 사건임

* $p < .05$. ** $p < .01$.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은 아동기부터 노년기까지 다양한 시점에 발생한 사건을 회상하였고 그러한 사건 발생 시 회상자의 연령인 기억 연령은 기억의 질과 심리적 거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억의 연령을 통제 변인으로 1단계에 투입하고 2단계에 기억의 질 및 개인의 특성을 투입하였다.

청년

청년집단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4와 같고,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긍정적 사건 기억에 대한 심리적 거리는 기억의 질 중 생생함($r = .54, p < .01$), 시연($r = .57, p < .05$)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부정적 사건에 대한 심리적 거리는 기억의 질 중 자존감($r = -.59, p < .01$) 및 새로움($r = -.41, p < .05$)과 부적 상관, 기억연령($r = .47, p < .01$), 중요($r = .51, p < .01$), 생생($r = .65, p < .01$), 시연($r = .50, p < .01$)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기억의 심리적 거리에 대한 기억의 질과

개인 특성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기억의 연령을 통제 변인으로 1단계에 투입하고 2단계에 기억의 질, 즉 정서, 중요, 생생, 시연, 새로움과 개인 특성인 참가자 연령과 자존감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긍정적 기억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5, 부정적 기억은 표 6과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 2($F = 6.24, p < .001$)에서 기억의 질과 연령, 자존감이 총분산의 64%를 설명하고 있으며 계수값이 유의한 독립변수는 기억연령($B = 2.21, p < .05$), 시연($B = 3.21, p < .01$), 새로움($B = -2.61, p < .01$)이었다. 따라서 긍정적인 사건은 시연 정도, 사건의 새로움, 발생 당시의 연령, 즉 기억 연령 순으로 사건에 대한 심리적 거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정적 기억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인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형 1($F = 10.13, p < .01$)과 2($F = 12.03, p < .001$)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 1에서 기억의 연령은 총분산의

표 5. 청년의 긍정적 기억의 심리적 거리에 대한 기억의 질과 개인 특성의 회귀분석

모형	변인	<i>B</i>	<i>βeta</i>	<i>t</i>	<i>R</i> ²	ΔR^2	<i>F</i>
1	기억 연령	.25	.29	1.76	.08	.08	3.11
	기억 연령	.31	.35	2.21*			
	정서	.02	.00	.03			
	중요	.72	.14	.91			
2	생생	.99	.25	1.80	.64	.56	6.24***
	시연	1.74	.48	3.21**			
	새로움	-1.22	-.35	-2.61**			
	연령	-1.51	-.30	-1.98			
	자존감	.17	.12	.98			

* $p < .05$. ** $p < .01$. *** $p < .001$.

표 6. 청년의 부정적 기억의 심리적 거리에 대한 기억의 질과 개인 특성의 회귀분석

모형	변인	<i>B</i>	β	<i>t</i>	R^2	ΔR^2	<i>F</i>
1	기억 연령	.41	.47	3.18**	.22	.22	10.13**
	기억 연령	.03	.03	.27			
	정서	1.30	.30	2.81**			
	중요	1.21	.26	1.29			
2	생생	1.12	.27	2.27*	.78	.55	12.03***
	시연	.59	.19	1.52			
	새로움	-.58	-.15	-1.42			
	연령	-.15	-.03	-.25			
	자존감	-.72	-.45	-3.65***			

* $p < .05$. ** $p < .01$. *** $p < .001$.

22%를 설명하였으며 모형 2에서 기억의 질과 연령, 자존감이 충분산의 78%를 설명하였다. 계수값이 유의한 독립변수는 정서($B = .03$, $p < .01$), 생생($B = 1.12$, $p < .05$), 자존감($B = -.72$, $p < .001$)이었다. 따라서 부정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자존감, 기억의 정서, 생생함 순으로 사건에 대한 심리적 거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노인

노인집단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7과 같고, 제시된 바와 같이 긍정적 사건에 대한 심리적 거리는 기억의 질 중 정서($r = .62$, $p < .01$), 중요($r = .71$, $p < .01$), 시연($r = .66$, $p < .05$), 새로움($r = .47$, $p < .01$), 자존감($r = .36$, $p < .05$)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던 반면, 부정적 사건에 대한 심리적 거리는 어떠한 변수와도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기억의 심리적 거리에 대한 기억의 질과 개인 특

성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청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긍정적 기억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8, 부정적 기억은 표 9와 같다.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 2($F = 6.31$, $p < .001$)에서 기억의 질과 연령, 자존감이 충분산의 67%를 설명하고 있으며 계수 값이 유의한 독립변수는 사건의 중요성($B = .60$, $p < .05$)이었다. 따라서 긍정적인 기억의 경우에는 사건이 중요성이 그 사건에 대한 심리적 거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정적 기억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인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형 2에서 기억의 연령($B = .64$, $p < .01$)과 참가자 연령($B = -.51$, $p < .05$)의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형 1($F = 3.36$, $n.s$)과 2($F = 1.75$, $n.s$)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7. 노인의 긍정 및 부정적 기억의 질, 심리적 거리, 참가자 연령 및 기억 연령 간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P-기억연령	1															
2P-정서	.19	1														
3P-중요	.00	.74**	1													
4P-생생	.11	-.09	-.04	1												
5P-시연	.08	.66**	.75**	.04	1											
6P-세로움	-.11	.56**	.77**	-.14	.61**	1										
7P-심리거리	.20	.62**	.71**	-.17	.66**	.47**	1									
8연령	.30	-.02	-.02	.20	-.05	.07	-.16	1								
9자존감	-.25	.36*	.27	.05	.16	.17	.25	-.13	1							
10N-기억연령	.51**	-.05	-.30	.22	-.11	-.19	-.25	.59**	-.07	1						
11N-정서	-.02	-.30	-.35*	.26	-.21	-.26	-.26	-.08	-.08	.07	1					
12N-중요	.01	.05	.28	-.15	.10	.18	.14	.15	-.06	-.01	-.21	1				
13N-생생	-.13	.22	.37*	-.37*	.17	.29	.13	-.18	-.10	-.33	-.42*	.61**	1			
14N-시연	.16	.19	.22	.16	.33	.16	.01	.13	-.03	.21	-.24	.19	.25	1		
15N-세로움	.28	.09	.04	-.17	-.09	.11	-.08	.25	-.09	.26	-.13	.64**	.42*	.32	1	
16N-심리거리	.04	-.09	-.32	.10	.00	-.23	-.27	-.17	.00	.31	.31	-.16	-.26	-.08	-.11	1

주. P는 긍정 사건, N은 부정 사건임

* $p < .05$. ** $p < .01$.

표 8. 노인의 긍정적 기억의 심리적 거리에 대한 기억의 질과 개인 특성의 회귀분석

모형	변인	<i>B</i>	β <i>eta</i>	<i>t</i>	<i>R</i> ²	ΔR^2	<i>F</i>
1	기억 연령	.05	.20	1.15	.04	.04	1.33
	기억 연령	.07	.28	1.98			
2	정서	-.48	-.07	-.37			
	중요	3.24	.60	2.44*			
	생생	-.22	-.20	-1.58	.67	.63	6.31***
	시연	1.17	.31	1.64			
	새로움	-1.04	-.15	-.75			
	연령	-.30	-.15	-1.21			
	자존감	.40	.15	1.13			

p* < .05. **p* < .001.

표 9. 노인의 부정적 기억의 심리적 거리에 대한 기억의 질과 개인 특성의 회귀분석

모형	변인	<i>B</i>	β <i>eta</i>	<i>t</i>	<i>R</i> ²	ΔR^2	<i>F</i>
1	기억 연령	.08	.31	1.83	.10	.10	3.36
	기억 연령	.16	.64	2.82**			
2	정서	.98	.19	1.02			
	중요	.60	.10	.40			
	생생	-.28	-.04	-.14	.36	.26	1.75
	시연	-.25	-.06	-.32			
	새로움	-.64	-.16	-.67			
	연령	-.95	-.51	-2.44*			
	자존감	-.04	-.02	-.09			

p* < .05. *p* < .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느꼈던 사건에 대한 기억, 즉 자기존중기억을

회상하도록 하여 기억의 내용을 살펴보고 기억에 대한 심리적 거리와 기억의 질 및 개인 특성 간 관계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은 긍정적 자기존중기억과 부정

적 자기존중기억 모두 성취보다 대인관계 주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반면, 노인의 경우에는 부정적 자기존중기억만 관계 주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둘째, 청년은 긍정적 자기존중기억의 경우에는 사건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고 시연을 많이 할수록 그 사건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느꼈으며, 심리적 거리의 예측요인은 사건의 시연 및 새로움, 사건 발생 당시의 연령으로 나타났다. 즉 사건 당시의 연령이 높고, 다시 말해 근래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 사건에 대해 많이 생각하거나 이야기하고 새로운 사건이 아닐 때 그 사건을 가깝게 생각하며 그 사건 속의 나를 자기 개념에 통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청년의 부정적인 자기존중기억에서는 사건 발생 시 연령이 높고 자존감이 낮을수록, 사건이 자신에게 중요하고 기억이 생생하며 새로운 사건이 아닐수록 그 사건을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꼈다. 그리고 기억의 정서와 생생함, 자존감이 심리적 거리의 예측요인으로 나타나 자존감이 낮고 사건에 대한 기억이 너무 부정적이지 않으며 생생하게 기억할 때 사건 속의 부정적인 나의 측면을 자기 개념에 통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넷째, 노인의 긍정적 자기존중기억에서는 사건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가 클수록, 중요하고 새로운 사건일수록, 시연을 많이 할수록 그 사건을 가깝게 느꼈으며, 사건의 중요성이 긍정적인 자존기억에 대한 심리적 거리의 예측요인으로 나타나 노인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 속의 나의 긍정적인 측면을 자기 개념에 통합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노인은 부정적 자기존중기억의 경우에는 현재의 연령이 낮고 사건 당시 연령이 높으면, 다시 말해 젊은 노인이 근래에 일어난 사건 속 부정적인 나의 측면을 나의 개념에 통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으나 기억의 질과 개인 특성으로 심리적 거리를 예측하지는 못한다.

자기존중기억의 주제에 관해 살펴보면, 청년은 자기 앞에 시간이 한없이 펼쳐져 있는 상황에서 삶에 필요한 자원을 얻기 위해 지식과 경험을 쌓고 관계를 확장하므로(Carstensen, Fung, & Charles, 2003) 자기존중기억의 주제로 성취와 관계가 모두 비중 있게 나타날 것이고, 선행연구 결과와 같이 긍정적 사건은 성취, 부정적 기억은 관계에 관련된 내용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의 결과는 이와 달랐다.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는 소속 욕구가 있고 소외나 고립을 피하고자 하며 사회관계에서의 부조화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는 것이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목표가 된다. 더구나 긍정적인 사회관계가 주는 영향보다 부정적인 사회관계가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것을 생각할 때 관계 주제가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개인의 독립성과 독특성을 강조하는 문화와 달리 인간관계, 집단의 조화, 일치를 중시한다(Hofstede, 2001). 따라서 타인과 잘 어울리며 적응하는 것이 강조되는(Leichtman, Wang, & Pillemer, 2003) 환경에서 그러한 요구를 만족시킬 때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낄 것이며, 그렇지 못할 때 결핍, 좌절, 실패감 등 부정적인 정서를 느낄 것이다. Wang과 Coway(2004)의 연구에서 미국인이 개인적 경

험, 일회성 사건을 많이 회상한 반면, 중국인은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을 회상하고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중요한 타인을 강조하였다. 관계를 중시하는 이러한 문화적 특성이 청년 결과의 이유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중국인 대상의 연구에서 일관되지 않은 결과는 서구화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짐작된다. 노인의 경우에는 친밀감이 발달과제인 성인 초기를 지났으나(Erikson, 1963)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려는 것은 성인기 전반에 걸치는 관심사(Sheldon & Kasser, 2001)이며 노년기에는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다는(Carstensen, Fung, & Charles, 2003) 측면에서 관계가 부정적 기억의 주요 주제로 나타난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의 긍정기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관계보다 성취 주제의 빈도가 더 높았는데, 성취가 만족감을 주며 성취한 자신을 좋아하게 되므로 긍정적 자기평가로 성취 관련 사건을 떠올리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게다가 노인은 신체 및 인지기능의 저하, 은퇴 및 역할 감소, 경제력 감소, 관계망 축소 등 여러 영역에서 감퇴를 경험하므로 자신의 능력을 확인해 주는 과거 사건을 회상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상실이나 저하의 보상적 반응으로 적응의 의미가 있고 노년기 안녕감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자전적 기억의 기능과 기억의 질 간의 관계를 알아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D'Armentau와 Van der Linden(2008)은 중요하고 정서적인 사건 기억에 대한 평가를 사용하여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건보다 긍정적인 사건을 좀 더 상세히 기억함으로써 긍정편향을 보이면서 자전

적 기억의 자기 향상 기능을 보여주었으며, 18세부터 80세의 참가자 445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Demiray & Janssen, 2015)에서는 사건의 중요성과 시연, 정서 그리고 자존감이 심리적 거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선행연구에서는 연령의 구분 없이 성인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사건의 중요성 및 새로움, 정서, 기억의 생생함, 시연이 심리적 거리에 영향을 미쳤는데, 청년의 경우에는 선행연구와 같이 기억에 대한 심리적 거리의 예측요인이 다양했던 반면, 노인에게는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사건만이 예측요인이 되었으며 자존감도 청년에게만 관련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젊은 시절에 작용하던 여러 요인의 영향력이 노인이 되면 사건의 중요성으로만 단순화되어 인생의 중요 사건에서의 긍정적인 나가 현재의 나와 연결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것은 청년과 노인의 자기 개념 향상에 관련된 교육 및 상담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기억의 내용에 관한 연구 결과는 우리 사회의 집단주의적 특성이 개인의 자아상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것을 말해 주면서 청년의 경우에는 긍정적 기억과 부정적 기억이 모두 대인관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므로 가정, 학교, 직장, 이웃 등 다양한 집단에서의 관계 맺기, 관계 증진, 관계 유지에 관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보살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노인의 경우에는 관계문제를 다루는 동시에 과거의 성취를 인정하면서 노화에 따르는 다양한 기능 저하 및 상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기억과

의 심리적 거리에 관한 연구 결과로 미루어보면 청년의 생활 지도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해 근래에 발생한 긍정적인 사건을 많이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이 긍정적인 자기상을 갖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노인의 경우, 긍정적인 자기 개념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갖기 위해서는 자아통합 프로그램, 회고 치료 등에서 내 인생의 중요한 생활사건을 회상하고 그 사건에 드러난 나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 강조하는 개입이 효과적일 것이다. 노인의 긍정적인 기억은 성취 주제가 많았으므로 중요한 생활사건 중 성취에 관한 사건을 회상한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자전적 기억의 자기기능에 관한 국내 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자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느꼈던 경험이 어떤 주제의 사건이었는지 살펴보고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의 질, 개인의 특성과 사건 기억의 심리적 거리 간 관계를 알아보았다. 자기존중기억의 주제를 통해 우리 문화의 특성을 확인하고 노화에 따른 주제의 변화를 보았으며, 긍정 및 부정적 사건에 따라 사건 기억의 심리적 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노화에 의한 요인의 변화를 볼 수 있었던 점은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는 제한점이 있으며 제한점 및 추후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모든 청년 참가자는 대학 입시 준비 과정을 거쳐 대학생임을 하고 있는 유사한 배경의 대학생이고, 노인 참가자도 비교적 학력이 높은 편이며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강 상태에 있으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참가자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

은 청년과 노인이었는데, 중년을 포함하면 성인 초기부터 후기까지 성인기 전반의 특성 및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에서 산출된 자전적 기억의 녹취 자료는 연령 혹은 자존감 고저에 따른 언어 차이 연구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기억의 연령에 대한 구분이 없었으나 추후연구에서 생애주기별로 자전적 기억을 산출한다면 심리 사회적 발달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경 (2014). 우울한 노인의 담화에 나타나는 자전적 기억의 일화 및 비일화 인출양상.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2), 59-74.
- 김영경, 진영선 (2013). 정서인지기능이 탈화제 발언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3), 47-69.
- 김영경, 진영선, 이장호 (2009). 노화와 자전적 기억: 회상유형과 사상유형에 따른 일화 및 비일화 기억 양상 간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3), 19-32.
- 이광경, 주영아 (2016). 노년기 자아통합감 증진을 위한 자전적 글쓰기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한국노년학*, 36(2), 295-313.
-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98-113.
- 이혜림, 최윤경 (2012). 자전적 기억의 과일반화와 반추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2), 59-77.

- 전병제 (1974). 자아개념 측정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회, 11(1), 107-130.
- 정인파, 곽동일, 조숙행, 이현수 (1998). 한국형 노인우울검사 표준화에 대한 예비연구. 신경정신의학, 37(2), 340-351.
- 진영선, 김영경 (2011). 기억 향상 요소를 강화한 노인 집단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노년학, 31(2), 389-405.
- Baddeley, A. (1987). But what the hell is it for? In M. M. Gruneberg, P. E. Morris, & R. N. Sykes (Eds.), *Practical aspects of memory: Current research and issues* (pp. 3-18). Chichester, England: Wiley.
- Barclay, C. R. (1996). autobiographical remembering: Narratives constrains on objectified selves. In D. C. Rubin (Ed.), *Remembering our past: Studies in autobiographical memory* (pp. 94-12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umeister, R. F., Campbell, J. D., Krueger, J. I., & Vohs, K. D. (2003). Does high self-esteem cause better performance, interpersonal success, happiness, or healthier lifestyle?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4(1), 1-44.
-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oeber.
- Bluck, S., Alea, N., Haberman, T., & Rubin, D. C. (2005). A tale of three functions: The self-reported uses of autobiographical memory. *Social Cognition*, 23(1), 91-117.
- Carstensen, L. L., Fung, H. H., & Charles, S. T. (2003).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and the regulation of emotion in the second half of life. *Motivation and Emotion*, 27(2), 103-123.
- Cohen, G. (1998). The effects of aging on autobiographical memory. In C. P. Thompson, D. J. Herrmann, D. Bruce, D. J. Read, D. G. Payne, & M. P. Toglia, (Eds.), *autobiographical memory: Theoretical and applied perspectives* (pp. 105-123).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onway, M. A. (1996). Autobiographical knowledge and autobiographical memories. In D. C. Rubin (Ed.), *Remembering our past: Studies in autobiographical memory* (pp. 67-9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rgembeau, A., & Van der Linden, M. (2008). Remembering pride and shame: Self-enhancement and the phenomenology of autobiographical memory. *Memory*, 16(5), 538-547.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 Demiray, B., & Janssen, S. M. J. (2015). The self-enhancement function of autobiographical memory.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9(1), 49-60.
- Elliot, A. J., & Mapes, R. R. (2005). Approach-avoidance motivation and self-concept evaluation. In A. Tesser, J. V. Wood, & D. A. Stapel (Eds.), *On building defending and regulating the self* (pp. 171-196). New York: Psychology Press.
- Elliot, A. J., McGregor, H. A., & Thrash, T.

- M. (2002). The need for competence. In E. L. Deci, & R. M. Ryan (Ed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pp.361-387). Rochester, NY: The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Erikson, E. (1950/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NY: W. W. Norton.
- Fivush, R. (1998). The functions of event memory: some comments on Nelson and Barsalou. In U. Neisser and E. Winograd (Eds.), *Remembering reconsidered: Ecological and traditional approaches to the study of memory* (pp. 277-28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bermas, T., & Bluck, S. (2000). Getting a life: The emergence of the life story in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26(5), 748-769.
- Hofstede, G. (2001).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sations across nations*. Thousand Oaks, CA: Sage.
- Ivcevic, Z., Pillemer, D. B., Wang, Q., Hou, Y., Tang, H., Mohoric, T., & Taksic, V. (2008). When we feel good and bad about ourselves: Self-esteem memories across cultures. *Memory*, 16(7), 703-711.
- Judge, T. A., & Bono, J. E. (2001). Relationship of core self-evaluations traits-self-esteem, generalized self-efficacy, locus of control, and emotional stability-with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A meta-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5(2), 237-249.
- Leichtman, M. D., Wang, Q., & Pillemer, D. B. (2003). Cultural variations in interdependence and autobiographical memory: Lessons from Korea, China, India, and the United States. In R. Fivush & C. A. Haden (Eds.), *Autobiographical memory and the construction of a narrative self: Developmental and cultural perspectives* (pp. 73-97).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Levine, B., Svoboda, E., Hay, J. F., Winocur, G., & Moscovitch, M. (2002). Aging and autobiographical memory: Dissociating episodic from semantic retrieval. *Psychology and Aging*, 17(4), 677-689.
- Lockhart, R. S. (1989). Consciousness and the function of remembered episodes. In H. L. Roediger & F. I. M. Craik (Eds.), *Varieties of memory and consciousness* (pp. 423-430). Hillsdale, NJ: Erlbaum.
- McAdams, D. P. (2001). The psychology of life stori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5(2), 100-122.
- McKay, M. & Fanning, P. (2000). *Self-esteem: A proven program of cognitive technique for assessing, improving and maintaining your self-esteem* (3rd). Oakland: New Harbinger Publication.
- Nasreddine, Z. S., Phillips, N. A., Bedirian, V., Charbonneau, S., Whitehead, V., Collin, I., Cummings, J. L., & Chertkow, H. (2005). The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MoCA: a brief screening tool for mild cognitive impairment.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53(4), 695-699.
- Orth, U., Robins, R. W., & Roberts, B. W. (2008). Low self-esteem prospectively predicts

- depression in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3), 695-708.
- Orth, U. Robins, R. W., & Widaman, K. F. (2012). Life-span development self-esteem and its effects on important life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2(6), 1271-1288.
- Pillemer, D. B. (1992). Remembering personal circumstances: A functional analysis. In E. Winograd & U. Neisser (Eds.), *Affect and accuracy in recall: Studies of "flashbulb" memories* (Emory symposia in cognition 4th ed., pp. 236-26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illemer, D. B., Ivcevic, Z., Gooze, R. A., & Collins, K. A. (2007). Self-esteem memories: Feeling good about achievement success, feeling bad about relationship distr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9), 1292-1305.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s, M., & Wilson, A. E. (2000). Constructing and appraising past selves. In D. L. Schacter & E. Scarry (Eds.), *Memory, brain, and belief* (pp. 231-258).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Ross, M., & Wilson, A. E. (2002). It feels like yesterday: Self-esteem, valence of personal past experiences, and judgements of subjective dist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5), 792-803.
- Sheldon, K. M. & Kasser, T. (2001). Getting older, getting better? Personal strivings and psychological maturity across the life 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37(4), 491-501.
- Stinson, D. A., Logel, C. M. Zanna, P. J., Holmes, G., Cameron, J. J., Wood, J. V., & Spencer, S. J. (2008). The cost of lower self-esteem: Testing a self and social bonds model of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4(3), 412-428.
- Wang, Q., & Conway, M. A. (2004). The stories we keep: Autobiographical memory in American and Chinese middle-aged adults. *Journal of Personality*, 72(5), 911-938.
- Wilson, A. E., & Ross, M. (2003). The identity function of autobiographical memory: Time is on your side. *Memory*, 11(2), 137-149.
- Woike, B., Mcleod, S., & Goggin, M. (2003). Implicit and explicit motives influence accessibility to different autobiographical knowledg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
- Yesavage, J. A., Brink, T. L., Rose, T. L., Lum, O., Huang, V., Adey, M. B., & Leirer, V. O. (198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geriatric depression screening scale: A preliminary report.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17(1), 37-49.

1 차원고접수 : 2019. 01. 08.

수정원고접수 : 2019. 02. 26.

최종게재결정 : 2019. 03. 20.

The Effects of Autobiographical Memory on Self-Concept: The Psychological Distance of Self-Esteem Memory

Young-Kyoung Kim

Hei-Rhee Ghim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themes of self-esteem memories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memory quality, age of memory, participant age,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distance of memories. Self-esteem memory means the memory representing especially high and low moments about oneself. The participants were 37 young adults(12 males and 25 females) and 34 older adults(11 males and 23 females). They were asked to test cognitive ability, self-esteem and depression, and recalled four positive and four negative self-esteem memories and rated the qualities of each memory. The content analysis showed that positive and negative self-esteem memories of younger adults frequently focused on interpersonal themes rather than achievement themes and only negative self-esteem memories of older adults frequently focused on interpersonal themes. These findings reflect the collectivistic character of South Korea and compensation of ability decline by aging. The regression analysis also showed that while frequency of rehearsal, novelty and age of memory predicted the psychological distance of memories in the positive memories of young adults and valence, vividness and self-esteem predicted in the negative memories of young adults, only the importance of events predicted the psychological distance of memories in positive memories of older adult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redicting variables of psychological distance are simplified by aging.

Keywords: autobiographical memory, self-concept, psychological distance of memory, theme of self-esteem memory, quality of memory